

# 무용의 표현성 연구 -욕망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김 정 은\*

## 목 차

Abstract	III. 욕망주체와 무용창작
I. 서 론	1. 오인성
II. 라캉의 주체영역	2. 차이성
1. 주체의 개념	3. 일탈성
2. 주체의 세 영역	I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Study on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dance creation -based on subjectivity of desire-

Kim, Jeong-eun ·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suggest the self expressions on the subject's inner world by exploring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dance creation expressing the unconscious world which is buried in the human's subconsciousness beyond the consciousness on the basis of Jacques Lacan's Desire Theory. Art can subline the theory esthetically, and especially the dance art is a passage connecting the consciousness and the unconsciousness, so can form the sympathy toward potential desires through their specific visualization.

As one way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Lacan's theory provides a clue to find a positive union point about the subject of desires. Also, th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about Lacan's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논문투고일: 2014. 01. 20. 심사일: 2014. 02. 10. 게재확정일: 2014. 03. 01.

theory showing the human's inner essence can be considered as the function as a slice showing the cycle of potential desires buried in the unconsciousness. Therefore, as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dance creation of this study suggest, metonymy through repetition is a cause and result simultaneously which leads a work.

For this study accepted the Imaginary, the Symbolic, and the Real among mental territories in Lacan's theory in order to describe the process forming the desire's subject. After exploring the factors of subject formation appeared in the process, and then this study arranged the characteristics found in each stage into the misconception, the difference and the deviation, which were set as the foundation for analyzing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dance creation.

So, this study suggested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dance creation from a creative aspect that understands the desires as human's essence and that the desires can purify and sublime desires themselves. And this study puts its meaning in that it highlighted a positive viewpoint seeing the desire as a productive thing that enriches individual's mental life. As a natural meeting between internal self and external self, the art creation provides chances to discover true appearances of each other. Especially, it can be considered the dance art contributes to transferring and integrating the human's unconsciousness area to the consciousness area. Therefore the author of this study thinks that the dance art should contribute for modern people to free from their inside, pressured and distorted self by continually seeking for new expression methods of subject. Further, the author suggests that creative approaches for created dance works and continual trials for relevant studies should obtain good results.

**key words:** unconsciousness, desire theory, subject formation, sublimation

**주요어:** 무의식, 욕망이론, 주체형성, 승화

## I . 서론

인간은 다원적 욕망의 주체로서, 인간의 삶은 욕망 충족의 끊임없는 활동이다. 유아기에는 자신의 원초적 욕망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한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경쟁을 하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욕망은 실현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욕망은 실현되지 못한다. 이때 실현되지 못한 욕망은 인간의 심층에 자리한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 속에 억압된다. 그리고 한 인간의 심층 속에 억압된 욕망이 계속 쌓이다보면 어느 순간 분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 속에 쌓여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번뇌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몰입한다.

욕망과 관련된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연구는 20세기에 이르러 철학과 예술분야에서 활

발하게 연구되어오고 있으며, 무용작품에서도 인간의 본성인 욕망은 창작의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예술은 인간의 잠재의식에 묻혀 있는 무의식의 세계와 깊은 관련을 지닌다. 이에 무용예술의 안무가들은 인간의 의식 너머에 있는 재현되지 않은 내적 욕망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표현 방법을 작품의 주제와 창작의 요소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체적 인간의 불완전한 내면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질이고 삶의 원동력인 욕망에 대하여 긍정적 이해와 수용을 권유하고 있기도 한다.

인간의 무의식 세계는 예술을 통하여 보다 더 깊은 탐색이 가능하지만, 그 가운데 특히 무용예술은 인간내면의 관념이나 감정을 신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표출함으로써 인간의 본질과 속성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J. Lacan(1901-1981)의 욕망이론을 바탕으로 인간 주체의 내면세계를 재인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라캉의 중심 이론 중 하나인 주체 부분에 주목하였다. 라캉은 주체형성의 세 영역을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자는 주체형성의 특성을 오인성, 차이성, 일탈성으로 설정하여 무용창작의 표현방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캉의 욕망이론을 통해 현대인이 당면한 욕망 주체의 정신적 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탈중심적 인간존재를 미학적으로 재조명하고, 무의식과 주체관계 속에 잠재되어 증식되는 욕망의 주체를 움직임으로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은 주체의 개념과 라캉의 욕망이론에서 주체 형성의 세 영역 특성을 탐색하고, 라캉이론에서 욕망의 전개와 무용창작의 실제화 과정을 접목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무용예술은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의 영역으로 전이하고 통합하는 작업이라는 전제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무용창작은 인간의 자아를 순화시키는 한편, 일체의 억압으로부터 자아의 해방을 가져오는 수단이 되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작업이다.

## II . 라캉의 주체영역

### 1. 주체의 개념

R. Descartes(1596-1650)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곧 정신을 신체보다 우위에 놓고 있는 사고이다. 여기서 주체는 정신과 신체를 모두 지닌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나’,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나’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주체 개

넘은 이후 I. Kant(1724-1804), G. W. F. Hegel(1770-1831) 등을 거치면서 다소 변화하였다.

A. Schopenhauer(1778-1860)는 인간정신의 본질이란 의식보다 무의식이, 이정보다는 욕망이 앞선 무의식적 욕망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에 영향을 받은 프로이트 역시, 인간의 잠재의식인 무의식에 과학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데카르트 철학 이후 신봉했던 이성중심적인 사고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이성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데카르트의 사유와 존재의 일치는 라캉의 사유와 존재의 불일치에 의해서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욕망의 근저에는 주체의 결핍이 있다. 주체는 결핍된 것을 타자를 통해서 채우려 한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라고 라캉이 말했듯이,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함으로써 타자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이다(김혜숙, 1995:179). 타자는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법을 포함한 욕망을 야기하는 상징적 질서를 가리키고 있다. 주체는 타자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착각하고 스스로 욕망의 주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되어, 자신이 욕망의 노예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무의식의 욕망은 욕망하는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쇼펜하우어의 ‘무의식적 욕망’에 영향을 받은 프로이트는 무의식은 ‘주체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정신구조를 이드, 자아, 초자아의 관계로 이론화하였다. 또한 그 뒤를 이어 라캉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재해석하여 ‘분열되는 주체’ 이론을 내놓았다. 즉 인간이 상징계에 안착하면서 ‘주체’는 그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들을 지속해 나가는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안착하지 못한 분열된 주체는 정신의 표면 밑으로 숨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주체’이다.

## 2. 주체의 세 영역

### 1) 상상계

상상계는 거울단계라고도 하는데, 6-18개월 정도 된 유아가 자신의 몸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조각난 상태로 느끼고 있는 단계에 해당한다. 이때 유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매혹되어 일종의 나르시시즘(narcissism)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거울에 비친 타자의 이미지를 자신으로 오인하게 된다. 그리하여 유아는 거울에 비친 이미지와 자신을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와 동일시함으로써 최초의 주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라캉은 타자와 자신의 동일시 관계, 타자와 자신의 혼동관계를 ‘이자관계(dual relation)’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며 어머니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어머니

가 욕망하는 대상인 ‘남근(phallus)’과 동일시한다(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 1998:198-200). 유아는 어머니가 욕망하는 남근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점차 아버지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 유아는 아버지는 남근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어머니가 욕망하는 남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남근 결핍을 자신이 메우려 하면서 어머니의 삶에 필수적으로 동화하려 한다.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는 유아의 주체는 아버지를 어머니의 욕망에 대한 경쟁자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유아는 주체가 아닌 공백 또는 무(無)로서의 존재가 된다.

이처럼 유아는 아버지의 등장으로 오이디푸스콤플렉스를 겪게 되면서 상징계로의 이행을 가져오는데, 유아와 어머니의 ‘이자관계’는 아버지와 삼자관계를 맺는 순간 유아는 욕망의 주체로써 분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유아의 주체는 자율성, 통일성,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분열된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아는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단념하게 되고 남근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분열로 생겨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의 잔여분, 공백을 ‘대상 a(objet petit a)’로 표기한다.<sup>1)</sup> 필연적으로 주체는 아버지의 등장으로 인해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숨길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프로이트의 ‘초자아’이론 즉, 주체는 아버지에 대한 선망과 두려움으로 초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소외와 분열을 수반하게 된다. 이때 초자아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자아에게 억압을 통해서 무의식의 영역인 ‘이드’를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 2) 상징계

상징계는 오이디푸스콤플렉스의 욕망을 규제하는 법의 세계, 사회적 세계이며 타자의 영역이다. 상상계에서 소외를 경험한 주체는 언어의 세계인 상징계에서 욕망의 대상을 찾게 되고 억압받게 되고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곧 ‘말하는 나’와 ‘내용의 나’로서 분열되는 것이다. 상징계는 단순히 기호가 사물을 지시하는 차원이나 의사소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가까운 방식이다. 인간은 상징계에 들어가서 위치를 부여받는데, 거울단계에서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바라보는 나’가 주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여지는 나’가 대상관계에서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언어가 맺어주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다.

라캉은 소쉬르의 구조언어학을 차용한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의 개념을 통해서

1) 프랑스어로 ‘오브제(objet)’는 대상, 객체를 의미하고, ‘petit a’는 타자(autre)의 철자 앞부분에 있는 소문자 ‘a’이다. 따라서 ‘objet a’는 결여로 인해 생긴 공백으로 욕망의 대상이자 욕망의 원인이 된다.

언어체계를 설명하였다. 언어로 인한 지시대상은 실제사물이 아니고 기의에 의한 기표일 따름이다. 따라서 의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표의 대체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표 아래로 기의의 끊임없는 미끄러짐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이 언어의 세계 속에서 사는 한 주체는 기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말은 인간이 언어를 통해 존재하는 한 인간의 의식은 은유와 환유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캉의 기표와 기의의 기호체계는 다음과 같다(임진수, 2010:121).

$$\frac{\text{기호의 표현(Signifier)}}{\text{기호의 의미(signified)}} = (S/s)$$

그림 1. 기호체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에 의해서 표현되지 않는 실제의 부분을 ‘object a’라고 말하는데 이 틈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게 된다. 상징계 내에 있는 언어의 영역은 주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도달할 수 없는 선망의 대상이다. 라캉은 이를 대문자 타자(Autre, 대타자) A로 명명하였다(송승철, 1999:283). ‘대타자’는 기표, 믿음, 진리의 장소를 만들며, 이로써 무의식과 욕망이 드러나게 된다. 대타자는 상상계의 거울에 비친 이미지와 달리 자아와 전혀 관계가 없다. 때문에 상상계적 ‘소타자’와 상징계적 ‘대타자’를 구분하는 이론을 발전시켜 자신의 대수학에서 이를 ‘a’와 ‘A’로 표현했다. 상상계에서 이미지로서 소문자 ‘a’로 부른 주체의 욕망이, 상징계에 와서 대문자 ‘A’의 욕망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 3) 실재계

실재계는 상상계와 상징계의 바깥에 있는 영역으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 세계가 아니다. 또한 실재계는 상징계를 통해서만 가정될 수 있는 것으로 현실과 혼동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실재계는 상징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object a’를 환상을 통해서 채우려 한다. 또한 라캉은 실재계를 언어를 통해 표현할 수 없는 잔여분 ‘X’라고 명명했다.

실재계는 상징화에 저항하는 부분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존재의 궁극적 한계로서 죽음충동(death drive) 및 주이상스<sup>2)</sup>와 연계된다(Homer, 2006:167).

2) 주이상스(jouissance) : 영어로는 ‘enjoyment’를 뜻하고, 향락 희열 등으로도 번역된다. 라캉은 종교적 또는 신비주의적 황홀경의 경험을 주이상스의 예로 제시한다. 즉 고통 가운데 쾌락을 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체가 감당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다.

라캉은 죽음충동의 개념을 상징계를 넘어서는 의미에 사용하며, 물자체(이드, the thing)<sup>3)</sup>를 향한 현실원리의 표현으로 간주했다(이병창, 2007:1). 주체는 일정한 정도의 쾌락만을 감당할 수 있다. 때문에 한계를 넘어서면 오히려 쾌락은 고통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죽음충동은 쾌락원칙을 넘어서 즐거움이 고통으로 경험되는 과도한 향락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시도인 것이다.

죽음충동은 주체 안에 있는 욕망에 붙여진 이름이다. 욕망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주체는 자신의 소외와 결여를 인정하고, 자신이 바로 욕망의 주체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잃어버린 'objet a'에 대한 갈망은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물, 주이상스의 원인이 되고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된다. 'objet a'를 물의 지위에 고양시키는 작업이 바로 '승화'이다. 프로이트는 승화란 본능에너지인 리비도나 죽음충동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측면에서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승화의 논의를 통해서 예술 및 문화의 향유원천에 리비도가 자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김석, 2007:247).

욕망은 예술, 과학, 종교, 세 가지 형식으로 승화되는데, 예술로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이 승화인 것이다. 예술을 승화의 한 형식으로 논의한 이래, 이 논의는 정신분석학과 미학의 영역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예술이론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 III. 욕망주체와 무용창작

라캉이론 중에서 주체가 형성되는 세 영역을 토대로 한 주체의 특성을 오인성, 차이성, 일탈성으로 분류하여 무용창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살펴보았다.

#### 1. 오인성

‘오인’의 구조는 주체의 형성과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유아의 잘못된 동일시에서 발생한

---

3) 물(the thing) : 라캉의 ‘물’은 한국어 물(物), 프랑스어 la chose, 독일어 das ding과 상호교환하여 사용한다. das ding은 욕망의 대상이다. 이 개념은 1959-1960년의 세미나 이후 타대상(object a)의 개념으로 바뀌어 사용되어진다. 쾌락원칙은 주체가 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법칙이다. 물은 언어 밖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주체에게 최고선으로 나타나지만, 만약 주체가 이 성(善)을 획득하면 주체는 das ding이 가져다주는 최고선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고통 혹은 악’을 경험하게 된다.

다. 상상계의 초기단계에서의 주체는 자신의 신체가 파편화된 상태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가 유아는 자신의 파편화된 신체에 불안감을 느끼고,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려 타자의 이미지를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이러한 오인에서 유아의 자아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안정을 되찾게 된다. 이때의 유아는 자신의 이미지에 매혹되어 나르시시즘에 빠져들게 되고 자신을 타자와 동일하게 보는 이자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오인으로 주체를 형성하지 못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주체가 환상, 오인, 착각에 의해서 자신을 거울 속 이미지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소외가 이루어지게 되고, 소외된 주체는 타자의 이미지에서 자아를 형성하려는 욕망을 내포하게 된다. 주체의 소외와 결핍, 상실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분열은 자신과 타자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주체는 탈중심적인 분열된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대칭관계에 놓여있는 자아와 타자 사이에는 일치될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다가 유아는 오이디푸스콤플렉스를 겪게 되면서 모든 인간이 남근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남근의 유무로써 구분하게 되는 또 다른 오인을 범하게 된다(임진수, 2012:182). 이러한 오인으로 유아는 자신도 여자처럼 남근을 거세당하게 된다는 거세공포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상상계에서의 주체는 오인성을 기반으로 하여 조각난 신체, 동일화, 나르시시즘, 거세공포증, 오이디푸스콤플렉스 등의 징후를 보이면서 그 특성을 드러낸다.

오인성의 성향이 보여지는 무용작품을 살펴보면, 오이디푸스콤플렉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M. Bourne의 《Swan Lake》 작품에서 지그프리트 왕자는 여리고 나약한 인물로 묘사된다. 왕자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에게 거세당할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하여 억눌려진 성적 욕망은 악몽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왕자의 억눌린 내면세계는 왕자의 이상을 대변해주는 백조를 통해서 자아의 이중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동성애적 욕망으로 인해 주체의 분열이 나타나는 B. Eifman의 《Tchaikovsky》 작품에서 차이코프스키의 자아는 내면의 갈등으로 이중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차이코프스키의 이중성은 내면의 차이코프스키, 흑조, 호두까기왕자에 의해서 억눌린 심리적 측면이 표출되고 있다.

오인성을 무용창작에 수용하게 되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완전하다고 오인하고 있는 유아의 무의식적 세계는 환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로 현실인지 상상 속의 세계인지를 알 수 없도록 연출할 수 있다. 주체는 점차 아버지라는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혼동 속에서 주체의 소외와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 무용수는 자신과 동일시하던 욕망의 대상이 있었던 ‘object a’를 상징적인 동작으로 연출함으로써 그리움과 공허함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분열적 주체는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의 내적갈등에 직면하게 되는데 또 다른 자아의 등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신과 동일한 동작을 하는 무용수의 증가는 주체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충족될 것이라고 믿었던 욕망에 대한 믿음이 불신으로 변하면서 욕망에 집착하게 된다.

## 2. 차이성

거울단계가 끝나면 사회적 주체의 형성과정으로 진입하게 된다. 진입과 함께 인간의 인식은 타자의 욕망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전달되며 인간은 문화적 중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로써 사회적 주체의 형성 과정이 전개되는데, 인간은 사회제도 혹은 규약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시도한다.

사회에서 금지된 욕망은 의식의 약한 틈새로 밀고 들어와 꿈으로도 나타나게 된다. 이때 꿈내용은 대략 두 단계를 거쳐 변형된다. 그 첫 단계는 내용이 압축된 어떤 것으로 바뀌고, 다음 단계는 다시 인접된 어떤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치(displacement)이며 라캉의 은유와 환유이다. 은유와 환유로 표현되는 기호체계 안에서 무의식은 다양한 형태로 비유된다. 앞서 언급한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말은 라캉의 이론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다. 이때 ‘언어처럼’은 바로 은유와 환유로 구조된 차이성의 체계인 언어를 말하기도 하고, 언어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다는 소쉬르의 언어관을 일컫기도 한다. 또한 라캉은 기표 아래로 기의가 끊임없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기표가 기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기호의 의미는 기표에 고착되어 있지 않으며 기호의 형식은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핍에 의한 차이로 인하여 계속적인 연쇄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차이성의 성향이 보여지는 무용작품을 살펴보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objet a’를 채우고자하는 M. Bejart의 《Bolero》 작품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남성무용수는 한정된 공간에서 동일한 박자와 반복되는 동작을 한다. 단순 반복적 효과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인간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욕망에 대한 억압과 갈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A. Tudor의 《Pillar of Fire》 작품에서 주인공 헤이거는 사회적으로 억압된 성(性)과 인간의 본능사이에서 갈등하는 불완전한 주체로서의 심리상태를 보여준다.

차이성을 무용창작에 수용하게 되면, 욕망의 시작 단계는 시각적인 내가 사회적인 나로 굴절되면서 시작되는 편집증적 소외를 느끼고, 이어서 욕망 발전 단계로의 진입을 뜻하는 ‘사회적인 나’의 형성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욕망은 커져만 간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동

작을 반복하는 무용수를 통해서 욕망에 대한 갈망을 표현할 수 있다.

환유적이고 강박적인 반복의 자동화는 근본적으로 말의 강요라고 정의하면서 저항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체의 삶을 형성하기 때문에 반복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Evans, 1998:136). 여기서 반복성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혹은 알아가기 위한 의미로 환유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욕망의 환유성은 움직임의 반복성, 공간의 한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욕망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욕망을 가진 환유적 주체의 ‘object a’는 개개인마다 서로 상이함을 지닌다. 따라서 무용수에 의해 표현되는 동작의 이미지는 개개인의 욕망의 크기와 특성을 보여주게 된다. 변화하는 욕망을 가진 환유적 주체는 욕망을 채우려는 주체의 모습을 다양하게 흡수, 용해, 변형시키면서 표현하여 그 안에서 욕망의 의미를 찾는 표현방식을 연출해야 할 것이다. 움직임의 속도, 에너지, 리듬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욕망의 자유로움과 다양함 그 이면에 존재하는 욕망이 넘을 수 없는 세계를 부각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 3. 일탈성

일탈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세계는 욕망이 발생하는 장소이고, 상징화의 밖에 존재하는 무의식의 세계이다.

상징화에 대한 저항이나 불가능성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일탈성의 범주에는 트라우마, 주이상스, 죽음충동 등이 내재한다. 트라우마는 주체가 외부 자극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제하는 데 무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면했을 때 일어난다. 주체는 트라우마적 사건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의 쾌락을 의미하는 주이상스는 죽음충동의 양상으로 발현된다.

또한 현실을 넘어서는 일탈성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해방과 자유는 주체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된다. 예술의 바탕에는 욕망의 대상을 상징적으로 ‘물’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려는 창조적 파괴와 죽음충동이 깔려있다. 억압된 자아는 예술을 통한 낯선 대상의 모습으로 표출되어 승화라는 실마리로 귀결되는 것이다. 승화란 저속한 에너지가 고상한 에너지로 전환함을 의미하며, 인간발달과정의 가장 숭고한 윤리적 단계이다.

일탈성을 무용창작에 수용하게 되면, 욕망에 몰두한 인간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는 욕망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고, 마침내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인간의 내면에서는 극과 극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주이상스와 죽음충동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주이상스는 몽롱하고 나른하며 흐느적거리는 동작 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죽음충동에

서 느껴지는 주이상스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죽음충동의 사실성을 강조하여 극적묘사를 통해 전율감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다. 무용의 절정부분에는 주체가 부정적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서 순화된 승화를 준비하는 모습을 표현해야 한다. 동작과 움직임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은 순화되고 승화되어 욕망충족의 돌파구 기능을 하게 된다.

다음은 라캉의 욕망이론을 토대로 한 주체형성의 특성을 도표화한 것이다.

표 1. 욕망이론을 토대로 한 주체형성의 특성

주체의 특성	개념적 요소	성격
오인성	이미지의 동일화	나르시시즘, 환상적 자아
	소외된 주체	분열, 불안, 욕망의 시작
	주체의 분열	주체의 이중성, 혼란감, 타자와의거리감
	오이디푸스콤플렉스	거세공포의 오인, 불안감증가
차이성	기표의 우월성	기표와 기의의 차이
	기표와 기의	비유의 연쇄
	기호형식의 결핍	미끄러짐 현상
	언어구조의 차이	억압, 규제
일탈성	상징계의 균열	주이상스
	죽음충동	반복강박충동, 트라우마
	정신적 해방, 자유	주체의 활육적 원동력

#### IV. 결론

본 연구는 인간의 잠재의식에 묻혀 있는 의식 너머의 재현되지 않은 무의식의 세계를 자크 라캉의 욕망이론을 바탕으로 무용창작의 표현특성을 탐색하여 주체의 내면세계에 대한 자아표현의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를 두었다. 예술은 그 이론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무용예술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주는 통로로서 잠재되어 있는 욕망들을 구체적인 시각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욕망의 주체형성 과정을 라캉의 중심이론 가운데 정신영역의 세 단계인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를 수용하였다. 유아는 상상계에서 의존적이고 자기소외적인 분열

된 주체성을 지니게 되고, 상징계에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하게 되고, 언어 너머의 세계인 실재계에서 현실에서는 견디기 불가능한 충동을 통해서 순간적인 희열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나타난 특성을 오인성, 차이성, 일탈성으로 분류하여 주체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의 특성을 유추하게 된다. 첫째 오인성으로 형성되는 주체는 나르시시즘적이고 환상적인 주체와 오이디푸스콤플렉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불안하고 분열된 주체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차이성으로 형성되는 주체는 사회의 제반 규칙들로 인하여 억압되어 있는 주체와 언어의 차이로 인하여 깨워지지 않는 욕망을 표출하려는 주체로 형상화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일탈성으로 형성되는 주체는 욕망의 충족을 나타내는 주이상스적인 주체와 욕망을 채우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죽음충동의 주체로 묘사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인간의 본질인 욕망에 대한 이해와 스스로에 의해서 욕망을 순화시키고 승화시킬 수 있다는 창조적 측면에서 무용창작의 표현특성을 제시하였다. 예술창조는 내적자아와 외적자아의 자연스런 만남으로서 서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무용예술은 그 어떤 예술보다도 인간의 무의식적 영역을 의식의 영역으로 전이하고 통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김석(2007), *에크리*, 살림출판사.
- 김혜숙(1995), *포스트모더니즘과 철학 : 탈주체, 탈형이상학에 대한 이해와 반성*, 이화여대출판부.
- 라강과 현대정신분석학회(1998), *코리안 이마고2*, 인간사랑.
- 송승철(1999), *주체론, 반주체론, 문학회론의 상호관계*, 실천문학사.
- 이병창(2007), *라캉에게서 죽음충동의 개념*,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임진수(2010), *네 가지 담화*, 파워북.
- \_\_\_\_\_ (2012), *상징계-실재계-상상계*, 프로이트 라캉학교.
- Evans, D.(1996), 김종주(역, 1998), *라캉정신분석사전*, 인간사랑.
- Homer, S.(2005), 김서영(역, 2006), *라캉읽기*, 은행나무.